

이성화학, 벽지용 친환경 접착제 개발

소비자의 친환경 요구 대응 ... 특수수지 첨가된 인공단백질 접착제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 생산기업인 이성화학(옛 일성화학)이 2003년 말 벽지용 친환경 접착제 PowderGlue 개발에 성공해 8월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생후 7월이 된 아기에 대한 새집증후군(Sick Home Syndrome) 피해가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는 등 최근 친환경 문제가 건축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건축부자재 공급기업들 또한 친환경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건축내장재 중 벽지용 접착제는 대부분 밀가루풀이나 수지를 첨가한 제품이 개발돼 제조 및 보관, 물성조절 등이 어렵고 쉽게 곰팡이가 생성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포름알데히드를 다량 투입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대안으로 개발해낸 가루상 접착제도 PVA가 주성분으로 곰팡이 및 얼룩 생성, 용해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친환경 요구가 강한 수요자들을 위해 대부분 독일의 가루상 접착제가 국내시장을 잠식했으나 초기 접착력과 접착력이 부족해 두꺼운 벽지에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성화학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색, 무취, 무공해, 습기 및 곰팡이 억제, 저장안정성 양호 등의 기존 수입 제품의 물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채부착성을 보완한 PowderGlue를 개발해 건축경기가 한창 성수기에 이르는 8월부터는 시판할 예정이다.

이성화학 관계자는 “수입품을 대신해 외화유출을 절약하고 신규인력 채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화학은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접착제 생산기업인 일성화학이 2002년 회사명을 바꾸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표적인 접착제 브랜드로는 <펭귄표 본드썸>이 있다.

<화학저널 2004/07/02>